

통권 제 237호

강남. 라 00943

2567
2023

07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14
세상을 향한 빛



불교이야기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십선성취
빠꾸기 우는 새벽

 불교충지중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부처님의 위신력

고해 중에 죄업중생 일심으로 삼보에게 참회하고 귀명하면 부처님의 미묘하신 금색광명 받을지니 이 광명을 받는 자는 몸의 병과 마음병이 모두소멸 하느니라.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일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지혜의 뜨락 _ 46

어쩌다 우리가

_ 방귀희



속담으로 보는 불교 _ 54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_ 김성철



나만의 빛, 모두의 빛 _ 58

전래동화

_ 한국전통등연구원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12 불교이야기

18 마음챙김 메커니즘

22 경전에서 찾은 지혜

24 문화재 해설

26 우리절 노래꽃

30 산책

36 살다보면

39 붓다in미디어

42 마음의 등불

46 씨앗 한 알

50 지혜의 뜨락

54 십선성취

58 속담으로 보는 불교

62 나만의 빛, 모두의 빛

65 서원당 안의 불교

68 금쪽상담소

72 마지막 공부

76 여행여담

78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법화일정

불공 잘해라 - 세상을 향한 빛 - 김천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 화령 정사

마음의 작용 - 임진수

목련존자, 어머니를 구하다 - 불교총지중 법장원

금동삼존불입상,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만든 부처님 - 위드다르마 편집실

왕생극락의 노래 - 묘원화 전수

산길을 걸으며 - 김대곤

소금강, 율곡 선생과 함께 걷는 길 - 이옥경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 TERU 조세훈

여름날의 소나기와 달 - 정동화

하루하루가 곧 휴가 - 법상 스님

어쩌다 우리가 - 방귀희

벼꾸기 우는 새벽 - 남해 정사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 김성철

전래동화 - 한국전통등연구원

광명진언 - 해광 정사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존재계의 주민들 - 유소림

동묘시장, 그 신비한 거리 中 - lovely씨이

어머니 덕분이다

위대한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업에는 취미가 없었고
청소년기에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했고
열아홉 살 때는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노예 출신의 여자와 동거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만 본다면
누구도 그에게 밝은 앞날이 올 거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모니카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32살의 나이에
모든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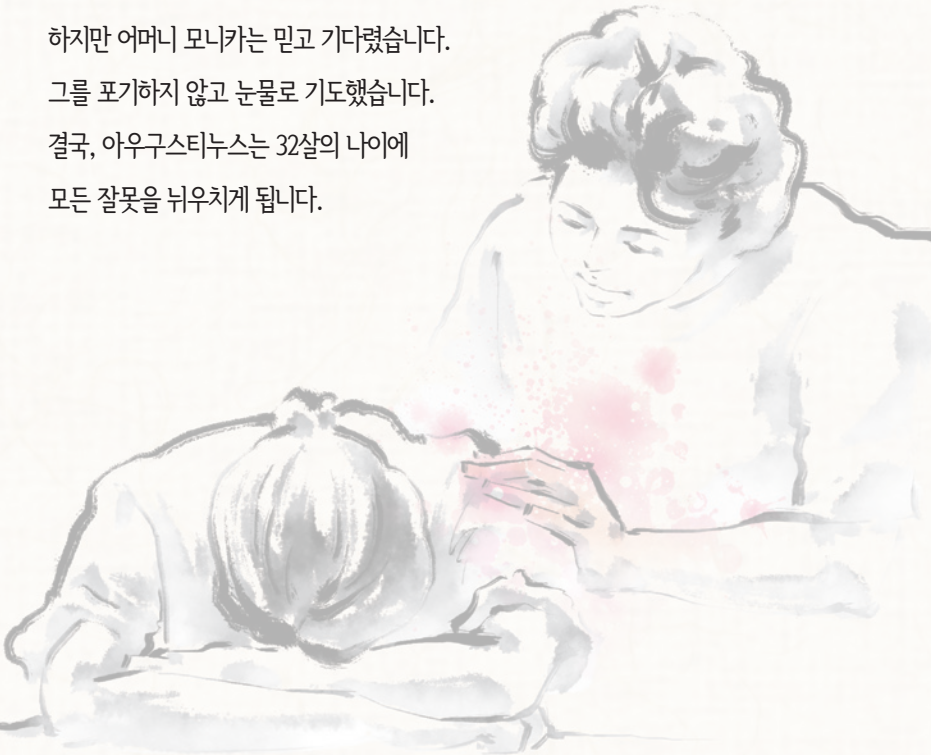
훗날 그가 집필한 ‘고백록’을 통해서
‘내가 흑암에서 건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기도한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이
언젠가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사랑하는 누구든지
잘못된 모습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바란다면
믿음으로 기다려 보고 지켜봐 주세요.

상대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언젠가는 크게 깨우치게 하고
참된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3년 5월 18일 자>



불공 잘해라 세상을 향한 빛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即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10화 - 새로운 길

스승이란 말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다. 시취(試取) 스승, 정사보(正師補)를 거쳐서 대성사는 1955년 4월 13일 정사로 승진하였다. 당시 대성사의 법호는 시당(施堂)으로 시당 정사라 불리었다.

갓 출범한 신생 종단이 분규에 휩싸이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면서 세상의 의혹이 모였을 때다. 누구라도 이 불편한 현실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대성사는 마음 깊이 깨닫고 있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기보다 새 종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대승보살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인생의 고

락을 겪으면서 고난을 통해 마땅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오상성신(五相成身, 즉 보리심을 통달하고 보리심을 지키며 금강심을 이루고 그 금강심을 키워 불신원만의 단계를 모두 수행하여 온전히 부처가 되리라는 물려서지 않는 각오로 정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스승의 길을 걷는 대성사의 각오였다. 사람과 재산에 얽힌 종단의 분란을 지켜보며 스승과 교인과의 관계와 마음이 집에 대해서도 느낀 바가 있었다.

“청렴정직하고 스승을 잘 받들어 행하면 다른 자격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교화는 잘 될 것이다. 종단은 민주주의나 어떠한 법조문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따라 스승과 제자, 수행을 이끄는 이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 모범을 세워야 크게 일어설 수 있다. 헌신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남의 과실을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여 화합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나 자신이 스승과 윗사람을 경멸하고 맞서 다투다면 어찌 아랫사람과 교도들이 나의 뜻에 따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스승의 도리에 대해 깊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줄곧 이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

흔들리는 교단을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한 끝에 세상 의혹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세상에 신흥종교의 비리 의혹사건으로 알려졌던 심인불교 사건은 결국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회당 대종사의 무죄로 판결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새 종단에 대한 세상의 기대도 커졌다. 1956년 4월 2일, 경북애국단체 연합회에서는 진각종의 실체를 파악하고 자신들의 대중 활동에 대한 참여를 요청했다.

진각종에서 두 분의 원로 스승과 함께 대성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짧은 기간 동안 대성사의 종단 내 입지가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대외적인 활동을 맡기 위해서는 위상에 걸맞는 인물이 나서야 했다. 새로운 종단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인품과 경험이 필요한 점도 염두에 두어야 했다. 더욱이 사회 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골라야 했는데, 대성사는 진각종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인격과 종교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대성사의 국가관은 항일운동과 망명생활,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다른 애국정신이 심지가 되어 있으므로 전후 사회의 안녕을 돕기 위해 종교인으로 해야 할 바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성사는 종교인으로 정치에 몰입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애국과 중생 사랑이 다르지 않는 것을 알고, 소승적 자아를 넘어 모두가 잘살아야 한다는 수행관이 민주주의와 통한다고 믿었다.

“정치와 종교는 마치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도 같다. 국법에는 죄는 별주고 종교는 착한 일을 권해 선행은 선한 과보를 받는다고 가르친다. 그렇게 알게 되면 악행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선을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와 종교 모두 선으로 이끌어 간다. 그 관계는 음양의 원리가 서로 겹과 안으로 함께 맞물려 돌아가 일마다 공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의심(道義心)을 크게 일으켜 국민을 더불어 교화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또한 종교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국가는 정치로서 그 자유를 주는 것이고 종교는 사람들의 양심을 스스로 이끌어야 진정한 자유 민주정치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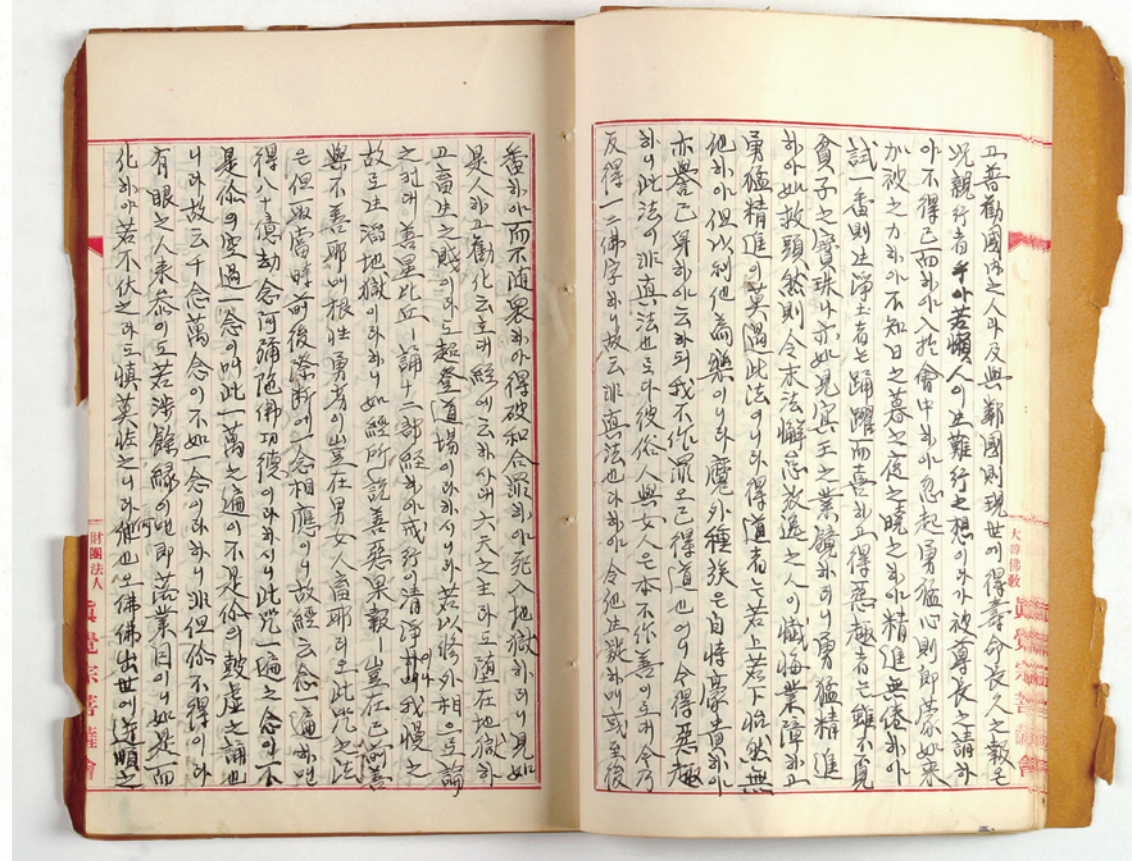
이런 이치로 보아 크게 보더라도 종교는 자유세계를 정신적으로 묶어가니 마음으로부터 전 세계가 하나 같이 되는 것이다. 나라마다 국민정신과 민족사상은 비록 다를지나 오직 신앙하는 종교적 이념만은 공통적이다. 생활풍속은 각각 다르지마는 신앙생

활과 윤리감은 같은 까닭이다.”

모든 송사가 마무리되면서 진각종은 다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된다. 회당 대종사는 1956년 10월 서울로 거처를 옮기면서 본격적인 포교 전법에 나섰다. 종단 전체의 일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할 일은 많으나 경륜은 부족한 때에 대성사의 경험이 빛을 더했던 시기이다.

진각종은 초기부터 밖으로 교육사업과 사회구제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전쟁 후의 혼란 속에 종교가 해야만 하는 꼭 필요한 노력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행정 체계를 만들고 교학을 세우는 일도 시급했다. 이런 안팎의 일들에 대성사의 힘이 필요했는데, 오랜 공직과 교육 현장의 경험은 진각종의 진로에 큰 역량이 되었다.

서울로 종단의 기반을 옮긴 후 1956년 대성사는 회당 대종사가 주석하던 서울 왕십리 심인당의 스승으로 봉직하게 된다. 현재 밀각 심인당인 왕십리 교당은 진각종의 서울 진출의 기반이 된 곳이다. 진각종은 초창기 각종 업무를 정비하고 규정을 만들며 일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재단 회칙으로 사감(查監)이란 직책을 만들게 된다. 종단 전체를 살피고 감사하는 막



진각종 재시 대성사 육필 역경본

중한 책임을 진 자리였다.

1956년 12월 11일 대성사는 진각종 초대 사감의 직책을 맡는다. 평생 공적인 일에 사사로운 마음을 내지 않고 정대하게 처리했던 성품에 꼭 맞는 직위이며 종단이 앞으로 바르게 나갈 나침반의 역할이었다. 사감 직책은 후일 감사 기관인 사감원(查監院)으로 확대된다. 초기 종단에 꼭 필요했던 사정 업무의 기틀을 잡는 것이 대성사의 소임이었다. 개인의 수행뿐 아니라 종단 전

체의 살림과 계율 등을 살펴야 했고, 대성사는 제기된 불평과 불만을 공명하게 처리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도 종도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대성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못이 있으며, 그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참회라고 하였다. 그것이 참회원으로 출발한 종단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가르쳤다. 중요한 것은 단죄나 처벌이 아니라 참회하고 자기 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그 원칙을 종단의 사감 업무에 그대로 적용해갔다.

“선악의 판단은 결코 전통적인 교육의 결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의식 속에 판단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참회하는 마음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며 인간만의 고유한 성질이다. 금수^{禽獸}는 참회하는 눈물이 없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만 있는 자는 배운 지식을 악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 든다.

거짓으로 선^善을 가장하여 위선으로 진실을 감춘다. 그러므로 인간이 먼저 된 후에 지식을 가져야 그 지식으로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이라면 무엇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사감의 역할로서뿐 아니라 스승과 교도들의 잘못된 일과 실수를 대하는 대성사의 가르침은 초기 종단의 불협화음을 바로잡는 데 큰 힘이 됐다. 종단이 외형적인 틀을 잡아가면서 내면적인 골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생겼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진각종이라는 밀교 종단에 맞는 경전의 번역과 그에 따른 교리의 정비인데, 이 일은 교단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불사였다.

1957년 8월부터 역경사업의 큰 틀을 잡고, 9월에는 ‘심인불교 금강회 해인행^{心印佛敎 金剛會 海印行}’ 출판사를 설립하여 경전 간행 업무를 시작한다. 회당 대종사가 역경작업의 책임자로 나서고 실무작업의 진행은 대성사가 맡아 밀교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기 시작했다. 한국불교사에 처음 있는 밀교 경전 집대성과 역경작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서울 밀각 심인당은 역경 불사의 중심지가 되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예의가 상실되고 정의가 사라졌으며 화목을 모르기 때문에 사회 전반이 더욱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양심보다는 물질추구를 우선으로 하며 극단적인 이기심이 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자기와 다른 쪽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정과 상식이라지만 내 편에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합니다.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조차도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그 후유증이 많은 병폐를 낳을 것입니다.

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할 종교계조차도 온갖 타락과 도덕성 상실로 사회로부터 도리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해야 할 어른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도 자기 앞만 보고 복을 빌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에 눈을 돌리고 개선해 나아가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강해져서 갈수록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연기의 세계에서 나 혼자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야말로 불교의 지혜와 자비정신이 더욱 필요합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悲, 同體大悲)라는 말은 모든 이들을 나와 한 몸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로 의존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은 나와 다른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 파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속이면 그 사람도 마음의 벽을 쌓기 때문에 그런 파장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미쳐집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보이면 그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하고 의심해 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서로를 불신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 마음의 문들이 꼭 닫혀서 사회가 더욱 황량해져 갑니다. 이러한 사회를 만든 데에는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가 삭막해지는 것을 경제적인 파페에 원인을 두기도 하지만 그것도 사회전반의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이 반영되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말들 하지만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라는 것도 성실히 노력하면 기본적인 것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는 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

다. 사회구조를 탓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회구조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그러한 구조로 끌고 간 것입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을 탓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정치인을 누가 뽑았습니까? 모두 우리의 손으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부조리와 도덕의 붕괴, 경제적 곤란의 궁극적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각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밭이 잘 가꾸어질 때 그 사회가 건전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항상 개개인의 정신 개발에 가르침의 역점을 두셨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자리를 개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고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개개인의 심성이 황폐해지면 그 사회는 건전하게 육성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해서 싸워봤자 개개인의 심성이 바르지 못하면 온갖 병폐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개개인의 심성이 다듬어지지 않고는 화목하고 안락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선부르게 사회 운동에 뛰어들어 제도를 고치고자 헛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셨



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사람이 바르게 되어 그러한 영향이 메아리처럼 물결처럼 퍼져 나갈 때에 이 사회는 근본부터 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만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난 세기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상 대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침략이라는 것이 꼭 총칼 들고 쳐들어와야 침략이 아닙니다. 외국의 투기 자본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우리 경제를 잠식하는 것도 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저속한 문화가 우리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것도 일종의 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게 계속 시달리면서도 큰 소리 한번 못치고 눈치만 보아야 하는 것도 침략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 큼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듣고 나 자신부터 달라져야 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바른 정신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교리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곧 불교입니다. 꼭 선방에 앉아서 가부좌만 하고 있

다고 해서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곧 도를 이루는 길입니다.

자기의 깨달음이 사회와 연관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여도 사회와 관련을 짓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법열法悅에 도취해 있다면 나무나 돌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성도를 하시고 입멸에 들려고 하시다가 다시 생각을 바꾸어 대중들을 상대로 설법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건전한 사회의 기틀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작용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

마음의 기본요소들의 상호작용 방식을 성격^{性格}이라고 하며, 각 개인에 특징적인 것을 개성^{個性}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욕망을 다루는 방식을 인격^{人格}이라고 하며, 이러한 것들을 선천적인 특성이라 볼 수 있다.

후천적인 환경 역시 선천적인 특성만큼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선천적인 개성은 후천적인 환경을 만나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타고난 기본요소들을 변형시키지만 후천적인 환경에 의한 변화는 선천적인 특성에 비해 크지 않다. 기본 요소의 형태 변화나 색깔의 변색 정도로 그친다. 오히려 후천적인 환경은 욕망을 다루는 방식인 인격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각 개인의 특성은 마음이라는 경계에 의해 제한된다. 마음은 ‘나’라고 하는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고, 기본요소는 ‘나의 한계’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마음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욕망과 상호작용을 하는 순간 번뇌가 만들어 진다. 번뇌가 되는 이

유는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의 한계와 제한적인 사회적 환경으로 번뇌가 일어난다. 때문에 이러한 욕망을 다루고 이루는 방식을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마음의 구조 편에서 나의 한계를 마음이라 규정하고 마음을 대접 같은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접 안에 기본요소들이 흙탕물의 작은 알갱이처럼 자리하고 있다면, 욕망은 전체적으로 퍼져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마음 또한 사람마다 다르며 크기와 재질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우리가 일상에서 속이 좁거나 넓다고 말하며, 마음이 단단하거나 무르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마음 작용의 패턴

그렇다면 마음 작용의 패턴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일어나는 마음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먼저 욕망에서 시작한다. 식욕에 해당하는 배고픔이 일어나면 밥을 먹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 뇌에 신호를 보낸다. 신호를 받으면 위에서 일어나는 배고픔이라는 감각에 대해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이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면 배고픔이라는 불쾌감을 사라지고 배부름이라는 만족감이 생긴다. 식욕이 해결되면 한동안 배고픔은 사라지고 새로운 욕구가 일어날 때까지 일상생활을 지속한다.

인간의 욕망은 크게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심, 이의심으로 나뉜다. 이 다섯 가지의 욕망은 홀로 또는 결합해서 일어나며 개인의 특성과 결합되어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생한다. 마음 작용은 욕망이 생겨나는 것과 해결하는 방식까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이러한 마음 작용의 패턴에는 일반적인 패턴과 개인 패턴이 있다. 일반적인 패턴은 인간의 보편적 공통패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불교에서는 ‘중생심(衆生心)’이라고 한다. 개인 패턴은 말 그대로 개인마다 다른 패턴을 뜻한다.

즉 마음의 작용은 공통패턴 속에 개인패턴이 더해진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일반적인 공동패턴을 기초로 하며, 이를 토대로 개인의 상황에 맞춰 개인패턴이 더해지면서 마음 작용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목련존자, 어머니를 구하다

불교총지종 법장원

목련존자가 육신통을 얻어서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 도안(道眼)으로 세상을 살펴보니, 그의 모친이 아귀 중에 나서 음식 구경은 고사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하여 그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다. 목련이 슬퍼서 곧 발우에 밥을 담아서 모친에게 드렸는데, 그 어머니는 밥을 보자 달려들어서 왼 손으로 발우를 잡고 오른 손으로 밥을 집어 먹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 때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득 재가 되어 그만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목련이 크게 통곡하고 쫓아와서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이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모친이 죄가 깊어서 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비록 너의 효순한 정성에 천지가 감동하여 돕는다 해도 그것으로는 구할 수 없으므로, 시방 여러 승(僧)의 힘을 빌려야만 해탈을 얻을 것이다.”

“목련아, 내가 이제 너를 위해 구제하는 법을 말해주리라. 7월 15일에 과거 7세(七世) 부모와 현재 부모를 위하여, 밥과 맛있는 백미(百味) 오과(五果)를 분(盆)에 담아서, 시방 대덕승(大德僧)들에게 공양을 올

리고 소원을 말하라. 지금은 공부하는 승이 공부가 끝나고 서로 허물을 참회하고 훈계받는 날이므로, 이날에 공양을 올리면 현재 부모 권속들은 수명과 복이 더해지고 병이 없어지며, 모든 재난과 화도 소멸되고 7세 선망(先亡) 부모는 지옥고와 아귀고와 축생고를 떠나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무궁한 복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목련아, 나아가 불제자(佛弟子)로서 부모에게 효순하는 사람은, 항상 부모를 위하는 생각으로 해마다 7월 15일에 우란분(盂蘭盆)을 지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승에게 공양을 올리면 각각 소원을 성취할 것이다.”

『우란분경, 盂蘭盆經』 불교총전 발췌

금동삼존불입상,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만든 부처님

위드다르마 편집실

작은 불상에 새겨진 이야기

손바닥 반 정도 크기의 이 불상은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삼국시대 불상 중에는 이처럼 이동이 가능한 작은 불상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글자를 통해, 우리는 이 불상이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남편이 발원^{發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상을 품에 넣어 다니던 첫 주인은 바로 그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鄭智遠爲亡妻 正지원이 죽은 아내

趙思敬造金像 조사를 위해 금상을 공경되게 조성하오니

早離三 빨리 삼도를 떠나게 해 주소서

여기서 삼도는 죽은 뒤 가게 되는 여섯 길^{六道} 중 악한 일을 저지른 자가 가는 세 길^{三道}인 지옥도, 축생도, 아귀도를 의미합니다. 남편 '정지원'은 아내 '조사'가 죽은 뒤 좋은 곳에 이르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불상은 명문^{銘文}의 '금상^{金像}'이라는 말처럼 표면이 금빛을 띠도



금동삼존불입상, 1919년 부여 부소산성 발견, 높이 8.5cm, 보물, M335-2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선유이〉 제공

록 청동에 금을 도금하였습니다. 신앙의 대상인 불상 표면에 금을 도금하는 것은 부처의 특징적인 모습을 설명한 32길상^{吉相} 80종호^{種好}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 '금상'은 32길상 중 하나인 '부처의 몸은 미묘한 금색으로 빛난다^{金色相}'는 특징을 표현한 것입니다. 32길상을 설명한 주요 경전인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는 '어떠한 금색도 부처의 몸에서 나는 금색에 비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불상에 표현된 금빛은 부처를 존엄하고 특별한 존재로 장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왕생극락의 노래〉

정완영 작사, 김희경 작곡

묘원화 전수

벽룡사

왕생극락의 노래

Andante ♩ = 72

정완영 글 / 김희경 곡

1. 뽕 읊 갈 - 은 이 - 세 상 에 목숨으로 뿌리 내 - 려
2. 저 - 하 - 늘 한 - 장 구름 이는 것이 삶 이 라 - 면

5. 골 은 줄 - 기 추 - 스려서 목마름도 달랬 었 고
깊 - 은 - 물 달 - 그림자 잠긴 것이 죽음 이 라

9. 푸 른 바 람 받 아 내 - 려 연잎으로 실었 거 - 니
구 - 림 과 달 - 그림자 본래 실상 없는 것 - 을

13. 왕 생 극 락 하 - 신 날 에 연 화 대 에 오르 소 서
한 - 줄 기 푸 - 른 연 기 열 반 경 에 드옵 소 서

17. 나 무 아 미 타 - 아 - 불 나 무 아 미 타 - 불

21. 나 무 아 미 타 - 아 - 불 나 무 관 세 음 보 - 살

25. 나 무 관 세 음 보 - 살 나 무 관 세 음 - 보 - 살

29. 나 무 관 세 음 - 보 - 살 음

Copyright © 2016. 2. 20. 묘원화

불교충지종에서는 우란분절(음력 7월 15일, 백중)을 해탈절이라 하여 양력 7월 15일날 불공 회향한다. 따라서 매년 5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기간에는 선망 부모 천도불공을 많이 드린다. 해탈절을 맞이하여 불공 받으시는 모든 영식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마음으로 청화 스님, 서용 스님과 같은 큰스님의 다비식에서 많이 불러드렸던 〈왕생극락의 노래〉를 소개한다.

〈왕생극락의 노래〉를 쓴 정완영 시인은 대한민국의 현대 시조 문학을 이끈 대표 시조시인으로 1919년 김천에서 태어나 평생 1천여 편의 시조를 썼으며, 2016년 별세 이후 직지사 부근 김천시 공립 문학관인 백수문학관 뒷산에 수목장으로 안장되었다. 특히 가곡으로 불린 애모와 고3 수험생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조국이라는 시가 유명하다.

정완영 시인은 자타가 인정하는 불자이기도 하다. 김천 직지사에서 뛰어놀며 성장했다는 정 시인은 “불자라서 불교적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시를 쓰다 보니 불교를 좋아하게 됐다.”고 했으며, “시를 즐겨 읽는 사람들은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불교를 좋아하게 된다.”고도 했다. 인간의 깊은 정신세계에서 자연과 정서가 섞이고 승화되어 나온 시를 읽다 보면 부처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교정신을 잘 우려낼 줄 아는 정완영 시인은 찬불가 작품 또한 많이 남겼다. 대표곡으로 〈일천강에 비치는 달〉, 〈부처님은 이르시네〉, 〈거울을 닦아내듯〉, 〈찬미의 나라〉가 있다.

휘이익 지나는 바람에
흘날리는 환희는
반짝임으로 대지에 뿌리박힌 채
숨죽이기도 소리 내기도 한다

타닥. 툇툇
알 수 없는 소리들
세상 떠나 어디론가 한 바퀴 돌아
찰나의 순간 가슴에 숨어들 때
그때 또 한 번 눈 감고 고개를 든다

7월 하늘은
산길에 피워진 꽃잎 하나에
나뭇잎 하나에 노닐고 있다

넌지시 시선을 섞어
나도 놀아 볼 일이다

응어리진 것들
잠시 바위위에 걸쳐두고 말이다

소금강, 울곡 선생과 함께 걷는 길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서른네 살 젊은 선비가 울창한 숲을 헤치고 계곡을 건너며 대자연이 빚어낸 절경에 넋을 잃는다. 1569년 초여름, 벼슬을 그만두고 강릉으로 내려와 청학산 산행에 나선 울곡 이이 선생이다. 심산유곡 청학동 계곡을 찾은 선생의 감흥이 얼마나 컸던가. 선생은 기행문 <유청학산기(遊靑鶴山記)>에서 “빼어난 산세가 마치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라며 청학동 계곡을 소금강(小金剛)으로 명명하기까지 한다.

그로부터 45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시인 묵객과 갑남을 녀가 소금강(정확히 말하면 소금강 계곡)을 찾았다. 가끔이긴 하지만 나 또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소금강을 찾는다. 지금이야 소금강 턱밑까지 차가 닿을 수 있고, 등산로가 잘 닦여 있으니 누구나 쉽게 찾고 가볍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지만 호랑이가 출몰했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험이고 도전이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나의 소금강 산행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1569 울곡 유산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 오대산국립

공원 소금강 무릉계에서 시작해 노인봉을 거쳐 진고개로 하산하는 13.3km의 등산로의 초입에 해당하는 구간 중 소금강 주차장에서 구룡폭포에 이르는 왕복 6.2km를 재정비해서 ‘1569 울곡 유산길’이라고 이름했을 뿐이다. 하지만 왕복 세 시간 반쯤 걸리는 이 길을 걷는 감회는 확연히 다르다. 예전의 산행은 가벼웠다. 그저 오늘의 햇살과 오늘의 바람을 맞으며 오늘의 숲과 오늘의 계곡을 만나고 오늘의 풍광 속에서 오늘의 여유를 만끽하는 게 다였으므로.

그러나 2021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와 (사)울곡 연구원이 울곡 선생의 <유청학산기>를 바탕으로, 문헌 고증과 현장 답사를 거쳐 만든 ‘1569 울곡 유산길’에서는 마냥 자유로울 수가 없다. 나도 모르게 선생의 발자취를 기늩해 보고, 기암괴석과 높푸른 봉우리, 깎아지른 절벽, 맑고 깊은 소에 대한 감상과 찬사를 담아낸 선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근 5백년을 거슬러 올라 선생과 나란히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선생이 직접 걸어 올랐다는 길이라 더 그런 것도 같다.

옛 선비들도 산에 올랐다. 요즘처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멋진 경치를 보면서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가 대부분이라 절경을 노래하며 고매한 인품이 담긴 시를 남기기도 했다. 오호, 그러

나! 양반의 산행은 상상 이상의 특권의식이 존재했다. 수십 명의 관비나 백성들을 동원해 화려한 산행 원정대를 꾸리고, 말이나 가마를 타고 산 아래까지 간 후 그곳에서 다시 또 가마를 타거나 노비들의 등에 업혀 산을 올랐다는 기록이 수도룩하다. 즐기는 사람 따로, 죽어나는 사람 따로 있었던 그 시절, 땀 흘리며 산행에 나섰던 선생의 파격이 신선하다. 그래서 ‘1569 율곡 유산길’은 내게 단순한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 코스가 아니라 율곡 선생을 따라 걷는 길이다.

선생의 소박한 산행은 소금강 초입에서 시작된다. 그곳에 당도해 말에서 내린 선생은 짚신에 지팡이를 짚고 계곡길을 걷는다. 깊이 들어갈수록 길가의 수석이 더욱 기이하고 눈이 어지러워 다 기록할 수 없는 계곡길은 세월의 풍파 속에 묻히고 굽이굽이 아스팔트가 깔린 지 오래다. 구절양장 잣고개를 넘어 만났다는 산촌의 허름한 초옥과 물방아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선생을 감탄하게 했던 봉우리의 푸른 기운만은 여전히 청량하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소금강은 단순히 이름뿐 아니라 실제로 금강산과 닮은 형상이 여럿이라고 한다. 소금강 구룡폭포는 금강산 구룡폭포와 닮았고, 소금강 만물상은 금강산 만물상과 흡사하다. 소금강 연화담도 금강산 연주담과 비슷하다고 하니

금강산의 비경을 구경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이라면 소금강에서 대리만족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

소금강 분소부터 본격적인 등산로가 열린다. 초록물이 뚝뚝 떨어지는 등산로 아래 금강송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계곡이 무릉계다. 불가에서 ‘세상사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도달하게 하는 꽃’이라 하여 피안앵이라 부르는 산벚나무와 산복숭아 나무에 꽃이 피면 무릉도원처럼 아름답다는 곳이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십자소다. 푸른 낭떠러지가 오이를 깎아 세운 듯하고 떨어지는 천류가 백설을 뿜어낸다 하여 선생이 ‘창운瀟雲’이라고 부른 곳이다. 바위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이 연꽃 같다는 연화담도 지척이다. 쪽쪽 뿜은 금강송에 둘러싸인 금강사는 소금강 안에 있는 유일한 사찰로, 단아한 대웅전과 부도 옆에 선 은행나무가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해 준다.

금강사의 맞은편에 펼쳐진 너럭바위가 식당암이다. 신라의 마지막 왕자인 마의태자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1천여 명의 군사를 훈련시키면서 밥을 지어 먹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자 초라한 절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선생이 이튿날 지정 스님과 산지기의 안내로 관음천(연화담)과 석문을 지나 당도한 산행의



© Wikimedia Commons. All Rights Reserved

종착지이기도 하다.

선생은 이곳에서 골짜기를 ‘천유동^{天遊洞}’, 서쪽 기이한 형상의 봉우리를 ‘축운봉^{矗雲峯}’, 식당암을 ‘비선암^{秘仙岩}’, 바위 아래로 흐르는 못을 ‘경담^{鏡潭}’으로 고쳐 불렀다. 명소마다 새로운 이름을 붙인 걸 보면 그만큼 감회가 깊었던 모양이지만 선생의 산행은 여기까지. 비가 올 것 같은 낯씨에 산행을 포기하고 서둘러 하산길에 오르면서 열 걸음에 아홉 번을 뒤돌아보았다는 글에 담긴 안타까움이 자못 절절하다.

나의 산행도 대부분은 여기까지.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청학의 거처를 보지 못한 아쉬움과 구룡폭포의 장관, 만물상의 변화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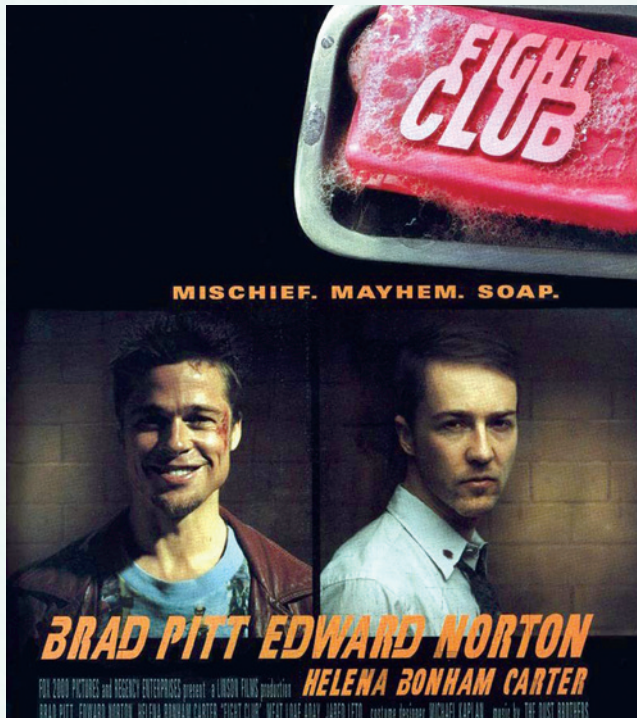
쌍한 모습을 남겨두고 무거운 발길을 돌렸을 선생처럼 나 역시 이쯤에서 뒤돌아선다. 올라갈 때는 여기였을까 저기였을까 선생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던 길이 내려갈 때는 선생의 속내를 생각하는 길이 된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청학산의 수려한 면면과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빗에 대한 비유, 그리고 진면목을 드러내지 못하는 청학산과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빗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어찌 선생만의 것이겠는가.

‘1569 율곡 유산길’은 산에 들었으되 정상을 고집하지 않고, 위대한 자연 앞에 몸을 낮추어 순응했던 선생의 겸손을 배우는 길이다. 과거에 아홉 번 장원을 했다고 하여 구도 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불리며 철학자로서, 정치가로서 눈부신 활약을 했지만 선생이라고 해서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동서 당쟁의 격랑을 겪어야 했고, 금강산에서 불교를 깊이 공부했던 전력으로 정치적인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선생은 산을 오르듯 묵묵히,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갔다. ‘1569 율곡 유산길’에는 선생처럼 제 길을 걸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무엇에도 연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1569 율곡 유산길’은 『유마경』의 ‘범부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버리지 않는 올바른 참선의 길’이 되어 그곳, 선생의 소금강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TERU(조세훈)

평범한 회사원, 대중음악연구소 음악평론가 제의를
받을만큼 음악과 영화를 관하는데 능하다.
콘텐츠 소개 프로그램 올레티비<파본자들> 출연
500여명 구독자 보유 브런치 작가



#1 스타워즈 6부작(1977~2005)

#2 그녀(Her, 2013)

#3 사랑의 블랙홀(1993)

#4 매트릭스(1999)

#5 아메리칸 뷰티(1999)

#6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2003)

#7 천년을 흐르는 사랑(2006)

#8 위대한 레보스키(1998)

#9 파이트 클럽(1999)

#10 엣지 오브 투모로우(2014)

#9 파이트 클럽 (Fight Club, 1999)

감독 데이빗 핀처

이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놀랍게도 90년대에 가장 폭력적인 영화 중 하나가 실은 불교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불교의 오계 가운데 첫 번째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의 ‘불살생(不殺生)’이라는 점에서 매우 모순적인 영화지만, ‘모든 걸 잃은 다음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It's Only After We've Lost Everything That We're Free To Do Anything’ 라는 영화의 홍보문구는 ‘진정한 채움은 비움에 있다’라는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 영화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전제로 한 포드주의에 기반 한 현대 물질문명의 허상을 통렬하게 조롱하며 풍자한다. 다시 말해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를 ‘소유욕’에 있다고 바라본다. 부처님은 인간들이 겪는 괴로움의 원인은 무지(無知)와 집착(執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무지와 집착을 무명(無明)과 갈애(渴愛)라고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무지와 집착의 원인을 ‘나(我)’와 ‘나의 것(我所)’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픽시즈의 ‘Where Is My Mind?’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인공은 고층 빌딩 폭발이 일어나야만 물질적 소유로부터 해방된다.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한 불교적 영향은 명백하다.

여름날의
소나기와 달

정동화

한국고전번역원 책임연구원

그것은 깨달음을 찾으려는 한 남자의 시도이기 때문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탈출 심리를 폭력과 파괴라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한 남자의 투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테일러 더든(브래드 피트)의 대사에 집중해보라! 그의 수사적인 질문은 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불교의 ‘선문답’과 매우 유사하다.

亂風驅驟雨 어지러운 바람 소나기 몰아오니
 霑灑滿前楹 갈 앞 기둥은 온통 물에 젖었구나
 飛瀑緣簷下 폭포인양 처마를 따라 떨어지고
 流湍遶砌橫 여울처럼 섬돌을 둘러 넘쳐흐르네
 已滌炎威盡 이미 무더위 싹 씻어 없애고 나니
 還多爽氣生 다시 상쾌한 기운 많이 일어나네
 向夕陰雲捲 저녁나절 먹구름 걷히자
 披襟對月明 옷깃 헤치고 밝은 달을 마주한다

- 허적(1563~1640), <수색집(水色集)> 권3

요즘은 봄이 왔다 싶으면 금세 무더위가 시작된다. 온종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땀을 흘리며 혈떡이다가,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지고 나면 그 시원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더위만 식혀주는 것이라, 마음의 때도 씻기지 않겠는가. 여기에 달까지 떠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시인은 한낮부터 밤까지의 변해가는 날씨를 그리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내면을 담아내고 있다. 바람이 몰고 온 소나기가

어느새 집의 앞 기둥에 흠뻑 빗물을 퍼붓는다. 빗물이 폭포처럼 처마에서 쏟아지고 급류처럼 섬돌을 끼고 도는 가운데 무더위는 사라지고 상쾌한 기운이 일어난다. 저녁이 되자 비를 안고 왔던 먹구름도 사라지고 밝은 달이 휘영청 떠오른다. 이제 시인은 옷깃 풀어헤치고 달을 바라보며 시원하고 맑은 풍경과 하나가 된다. 온몸으로 스며드는 상쾌한 기운에 마음마저 맑아졌으리라.

여름날 후드득 비가 내려 천지의 티끌을 씻어내고, 말끔히 갠 하늘에 상쾌한 바람이 불고 밤하늘엔 밝은 달이 비춘다. 이 광경은 온갖 고뇌와 욕심이 사라져 청정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 그대로 쇠락_{麗落}한 경지이다. 이것을 옛사람들은 '광풍제월_{光風霽月}'이라고도 하였다. 마음속의 허물을 씻고 먹장구름을 헤쳐 밝은 달빛을 맞는 건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루하루가 곧 휴가

법상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묵탁소리' 지도법사

오후의 산책, 하늘은 화창하고, 푸름은 너무도 높고, 몽실몽실 떠가는 구름은 신비롭고, 바다색은 짙고, 고개 들어 산을 바라보면 희끗희끗 눈 덮인 산맥이 성스럽고, 그 청명한 하늘 위로 자유로이 갈매기 떼들이 떼를 지어 날고 있다. 아, 이곳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여행이며 만행이고, 모든 걸음걸음이 히말라야이며, 매 순간 순간이 휴가이자 휴식이다.

휴가나 여행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쉼, 설렘, 떠남, 평안 등의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선물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휴가나 여행은 몸이 떠나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매일 매일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의 '멈춤'으로써 휴가와 여행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길을 걷고 길 위의 모든 존재에 눈빛을 보내며 따뜻한 사랑을 보내며 묵연히 걷기만 할 때 이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됨을 경험한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잠시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솟아오른 눈 덮인 설악의 산맥을 보고 있자면 그 순간 바쁘고 정신없던 일들은



사라지고 나는 지금 어느덧 히말라야 깊은 산 위를 걷게 된다.

아무리 해야 할 일로 번거롭다 할지라도 잠시 호흡에 마음을 모으고 맑고 시원 공기를 깊숙이까지 품어 안았다가 내보내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나는 어느덧 2,500년 전 붓다의 영산회상 한 편에 앉아있는 그 성스러운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된다. 컴퓨터 모니터를 주시하다가도 잠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이곳은 익숙한 일터이거나 생존경쟁의 장이 아닌 호젓한 여행자가 머무는 인도의 시골마을 고즈넉한 게스트하우스가 된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자리를 휴식으로, 쉼으

로, 여행으로, 휴가로 바꿀 수 있다.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구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바삐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돌려 길가에 피어난 꽃과 나무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책을 보다가도, 신문을 읽다가도 잠시 보고 읽는 것을 멈추고 호흡의 들고 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행여 TV에 정신이 팔려 있었더라도 잠깐 TV를 끄고 그저 텅 빈 벽을 주시하며 내면의 아주 작고 여린 움직임을 관찰해 볼 수도 있다.

하루 중에, 하루 일과 중에, 익숙하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잠깐 잠깐 단 10초라도 좋다.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하고 있던, 바로 그 모든 행위를 잠시 비우고, 멈추고, 아주 낮은 시선으로 전혀 텅 빈 시선으로 속 뜰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바로 그 '멈춤'의 순간 위대한 붓다의 사랑과 축복, 깨어있음이 깃들게 된다. 수행이라는 것이 꼭 선방에서만 피어나는 것은 아니며, 근기가 높은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아주 잠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참선을, 명상을 배울 수 있다. 아니 이것을 참선이나 명상이라고 애써 이름 짓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그저 텅 빈 순수 그 자체이고, 깨어남이며, 모

든 성자와 현자들의 방법이었으며, 붓다의 방식이다.

다만 매 순간 순간 일상에서 자주 자주 잠시 멈추고 바라보라.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쉽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다. 사실은 '지금 여기'라는 곳이야말로 모든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은 나라는 존재야말로 완전하고도 충만하고 딱 찬 더 이상 얻어야 할 또 다른 힘을 필요치 않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우리가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불교종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
 <E美지> <숨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요즘은 TV 켜기가 무섭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식은 늙은 부모를 잔인하게 죽이는 존속 살인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 전세 사기, 주식 사기, 보이스 피싱 등 남의 재산을 빼앗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니 언제 나도 그런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음주운전으로 아까운 어린 생명을 앗아가고,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권하는 나쁜 어른들 때문에 싱그러워야 할 우리 아이들이 시들어가고 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가슴이 답답했는데 얼마 전 tvN Story <어쩌다 어른>을 보면서 ‘그래, 바로 저거지!’라는 깊은 공감에 희망이 생겼다. 스님과 신부님이 함께 무대에 서서 불교와 천주교의 기본 교리를 교차방식으로 소개하였는데 서로 경쟁하는 배틀이 아니라 각자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최고의 콜라보를 보여주었다.

두 분은 상대방 종교를 절대로 비판하지 않았다. 어느 종교가 더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도록 하였다. 불자는 불



자대로 가톨릭신자는 신자대로 자신의 종교에 자존감이 높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종교인이 아닌 박식한 지식과 너그러운 포용력으로 서로를 지지해주는 모습에 종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서로 비난하며 공격하는 모습에 질려버린 시청자들은 모처럼 편안하게 다름을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종교의 역할은 인간이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지옥에서 당

할 고통이 끔찍하여 착하게 살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대는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달하여 사람들은 단지 지옥이 두려워 착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지옥의 고통은 바로 현실에서 받게 된다. 요즘은 완전 범죄가 불가능하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과 검찰이 다 잡아서 사법 처리를 받게 된다. 자유를 빼앗긴 기나긴 수감생활이 바로 지옥일 것이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1889년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미^美가 예술의 근본이지만 선^善이란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선을 포함한 예술을 좋은 예술이라고 명명하였다. 좋은 예술은 평등주의적, 쌍방향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의 선을 확장시켜나가는 위대한 예술이라고 하였다. 예술은 과학과 함께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요소인데 예술이 선을 중요시하듯이 과학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공동의 선을 실천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핵무기를 앞세워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진다.

우리 사회는 놀라울 만큼 발전하고 있는데 국제 사회는 왜 역주행을 하며 신냉전주의를 형성하는지 안타깝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스님과 신부님은 하나 같이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세월이 흘러 어찌다 어른이 되었을 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한 치 앞을 못보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하다.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순간 서로 공감하며 멋진 협력으로 더 큰 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스님과 신부님 두 분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찬불가도 찬송가도 아닌 대중가요 ‘걱정 말아요. 그대’ 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등한 선^善이 우리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불교는 그 어느 사상보다 앞선 화합 정신을 갖고 있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중도사상,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불이사상, 모순과 대립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다루는 화쟁사상, 서로 다른 쟁론을 화합하여 하나로 소통시키는 원융회통사상 등 정말 많은 사상이 화합을 위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런 좋은 화합 정신을 다함께 실천한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하게 번영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인류 공동체로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삐꾸기 우는 새벽

남해 정사

단음사 주교

5월 중순경부터 서원당에서 새벽불공을 하고 있으면 단음사 경내에서 삐꾸 삐꾸 하며 삐꾸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둠이 밀려오는 저녁나절에 들리는 삐꾸기 소리는 왠지 쓸쓸함과 애절함, 저녁녘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새벽녘에 우는 삐꾸기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래처럼 들린다. 그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의 화려함에 속아 그 이면에 있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보지 못한다.

삐꾸기는 스스로 새집을 만들지 않고 작은 뱀새가 지어놓은 둥지에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새로 예쁜 울음소리와 달리 사람들에게 다른 새를 이용하는 이기적인 새로 알려져 있다. 자기보다 작은 뱀새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몰래 낳은 어미 삐꾸기의 탁란보다 사람들의 분노를 더 유발하는 것은 알에서 깬 새끼 삐꾸기이다. 새끼 삐꾸기는 알에서 나오자마자 두 날갯죽지를 크게 펼치고 있는 힘을 다해 뒷걸음질 치며 뱀새의 알을 하나씩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온 힘을 다해 힘겹게 세상에 나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생명의 희생까지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요즘 보면 삐꾸기 같은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살기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삐꾸기를 날리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의 수법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그 중에 소중한 가르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소중하게 만드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 어떤 것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아무리 화려한 업적과 거룩한 목소리로 다가와도 진리가 빠져나가고 그 사이에 사욕이 들어 찬 사람들의 가르침을 걸러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

혼자 둥지를 독차지한 새끼 삐꾸기는 뱀새의 먹이를 받아먹는다. 거의 다 자란 새끼 삐꾸기는 둥지가 작아질 만큼 몸이 커져 밖으로 나와서도 일주일 정도 자신보다 네 배나 작은 뱀새에게 여전히 먹이를 받아먹는다. 자신의 새끼를 죽인 새의 입에 설 새 없이 먹이를 날라다 주는 뱀새의 모정은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자식을 지키는 듯 보인다.

뱀새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뱀새



의 둥지 주변에 삻꾸기가 나타나면 뱀새는 삻꾸기를 경계하거나 공격하기도 한다. 행여나 자신의 둥지에 알을 낳고 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뱀새는 자신의 알을 구별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한다. 뱀새의 알은 원래 푸른색이라 같은 색의 삻꾸기 알과 구별하기 힘들었으나 살아남기 위한 진화로 인해 점점 알이 흰색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바라건대 새벽에 우는 삻꾸기의 울음소리가 어미 뱀새에게 지은 죄를 생각하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죄책감에 눈물짓는 참회의 울음소리이길, 자신의 새끼로 인해 죄 없이 죽은 뱀새 새끼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울음소리이길 바래본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사)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상임고문
 80여 편의 논문 발표, 20여 권의 저·역서 발간
 <원효의 판비랑론 기초연구> 등 3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승량,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한국연구재단 10년 대표 연구 성과 선정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도 허기를 채운 뒤에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는 ‘밥’과 무관한 그 어떤 것도 관심을 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금강산 구경’은 정신적 활동이고, ‘밥’은 그런 정신적, 문화적 향유를 위한 물질적 바탕이다.

부처님의 교화방식 가운데 이와 부합하는 것이 있다. 바로 차제설법(次第說法, Anupubbikathā)이다. 차제설법이란 ‘순서에 따른 가르침’ 또는 ‘점진적인 가르침’이란 뜻이다. 불교의 지적(知的)인 깨달음은 사성제에 대한 통찰을 통해 얻어지지만, 부처님께서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사성제를 가르치지 않으셨다. 특히 재가불자를 교화하실 때에는 먼저 세속적 복락을 얻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셨고, 이어서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치셨으며, 다음에는 그런 쾌락으로부터의 해탈을 가르치셨고, 마지막에 가서야 사성제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세속적 복락 가운데 최고의 것은 천상락(天上樂)이라. 내생에 천상에 태어나려면 남에게 많이 베풀고(보시), 청정하게 계를 잘

지키면(지계) 된다. 소위 ‘시(施), 제(戒), 생천(生天)’의 교화다. 내생까지 갈 것도 없다. 현생에도 내가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고 싶다면, 남에게 많이 베풀고, 항상 절제하며 청정하게 살면 된다. 재물만 보시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고 표정 하나라도 잘 짓는다. 모두 다 보시행이다. 적든 많은 모은 재산을 허비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살아간다. 지계행이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뜻밖의 경사가 있다”고 하듯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만복이 깃들지 않을 수 없으리라. 보시와 지계.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얻어진 세속적 복락은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 언젠가 모든 게 무너지고 만다. 감각적 쾌락은 오래 지속되면 반드시 고통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오래 서 있으면 앉고 싶고,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눕고 싶지만, 계속 누워있으면 그 편안함이 다시 고통으로 변하기에 자리에서 일어난다. 잠을 자면서 밤새 엎치락뒤치락 거리는 이유도 안락이 지속되면 반드시 고통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윤회의 세계가 바로 그렇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쾌락도 그 궁극적 본질은 고통이다.

교화대상이 이런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부처님께서서는 비로소 그런 쾌락조차 추구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다. 해탈을 추구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성제에 대한 통찰에 있다. 고통이든 쾌락이든 모든 것의 궁극적 본질은 고통이다^苦. 그런 고통은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속 번뇌에 있다^集. 그런 번뇌를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滅. 팔정도 또는 계정혜 삼학의 수행을 통해 공성의 진리를 체득하면 그런 번뇌의 뿌리가 뽑힌다^道. 차제설법의 종점, 사성제의 가르침이다.

차제설법 가운데 ‘보시, 지계, 생천’의 가르침을 통해 그동안 동경했던 세속적 복락에 대한 모호함이 사라질 때, 비로소 세속적 복락의 정체를 철견하여 해탈을 희구하며 사성제의 통찰에 들어갈 수 있다. 금강산 구경도 밥을 먹어서 허기를 채운 후에야 가능하듯이, 세속에서는 복락에 대한 한^恨을 제거해야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선교방편^{善巧方便}의 차제설법을 베푸신 이유다.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지전통등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PART 1. 한국의 풍속

I. 사신

II. 화성원행반차도

III. 무예 24기

IV. 전래동화

V. 시집가는 날

VI. 삼일유가

VII. 조선의 풍속

VIII. 12지신



별주부전

IV. 전래동화

(Folklore)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동심이 바탕이 된 이야기다. 주로 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서 생성된 신화와 전설에 기초하기 때문에
해학과 초현실적인 요소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전래
동화는 권선징악(勸善懲惡)과 해피엔딩(Happy Ending)이 주를 이루
고 있으며, 사회에 교훈과 역사의식을 전달하는 주제가 대부분
이다.



홍부전



심청전



금도끼 은도끼



흑부리 영감

광명진언 光明眞言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광명진언은 비로자나부처님의 진언 중의 하나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을 거느리고 포함하는 진언입니다. 또한 이 진언 안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진언도 들어가 있습니다.

옴 아모카 비로자나 마하무드라 마니
반메 지바라 파라파티야 흠

이 진언은 부처님의 덕성과 공능이 마치 밝은 광명^{光明}으로 널리 세상을 비추는 태양에 비유됩니다. 현생에서 일체 소원을 이루고 재난을 소멸하며 고인^{故人}으로 하여금 극락왕생하게 하는 진언으로 진언을 외우면 부처님의 광명을 얻어 모든 죄보가 소멸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어깨높이 들어 올리고 손바닥을 활짝 펴니다. 다섯 손가락은 곧게 펴서 마치 손바닥에서 오색(흑, 백, 청, 황, 적) 광채가 퍼져 나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수인을 앞으로 향한 것은 모든 중죄를 타파하여 고통 받는 중생들을 반드시 극락정토에 이르게 하겠다는 맹서의 의미입니다. 또한 다섯 손가



광명진언 수인을 결하는 스승들의 모습

락은 오불(비로자나불, 아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을 의미합니다.

『불공전색신변진언경』에 의하면, 광명진언의 공덕은 ‘이 진언을 외우는 자는 광명을 얻어 여러 가지 중죄를 멸하고 속세의 업과 병고, 장애를 없애고 지혜와 변재와 장수복락을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진언으로 가지^{加持}한 토사^{土砂}를 죽은 사람이나 무덤 위에 뿌리면 이고득락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지토^{加持土}는 일반 흙과 다릅니다. 이 가지토는 비로자나부처님의 진언으로 신통력을 지닌 흙입니다. 실제 신라시대 고승 원효대사는 그의 저서를 통해 광명진언과 가지토의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강남구에 60여 곳 이상 자리 잡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연합

사용을 강조하였으며, 가지고 다니던 바가지에 깨끗한 모래를
담아 광명진언을 108번 외운 후 그 모래를 죽은 자나 무덤위에
뿌려 영가의 극락왕생을 천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충지종과 현교 종단에서는 돌아가신 영가들의 천도를
위하여 재불사나 상장의례에 광명진언을 많이 지송^{持誦}하고 있습
니다. 참고로 현교에서 사용하는 광명진언은 ‘옴 아모카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바 즈바라 프라바를타야 흠’ 이라고
읽습니다.



- 01 공갈젖꼭지에 집착하는 아이
- 02 고기만 먹고 채소는 안먹는 아이
- 03 잘 먹지 않거나 음식을 입에 물고 있는 아이
- 04 제자리에서 안먹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아이
- 05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 06 소변을 참다가 옷에 실수하는 아이
- 07 씻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 08 이를 닦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 09 계절과 상황에 안맞는 옷을 입으려는 아이
- 10 스스로 옷과 신발을 벗지 않으려는 아이

05.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

돌이 지나면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했다. 두 돌 무렵부터는 실수한 적 없이 대소변 가리기가 가능하였으나 최근 들어 옷에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아이에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게 된다.

원인

- 1) 동생이 태어나면서 엄마를 동생에게 뺏겼다는 마음에 일시적으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 2) 대소변 가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부모 욕심에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했을 경우
- 3) 외출 시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낀 경우
- 4) 실수했을 때 부모 외 다른 일시적인 보호자로부터 야단을 맞은 경우
- 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노출된 공간에서 실수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 6) 혼자 대소변 보는 중 화장실 문이 갑자기 잠기면서 공포감을 느낀 경우

- 7) 혼자 입고 벗기 힘든 옷으로 인해 급한 마음에 실수한 경우
- 8) 부모의 잦은 싸움이나 가정 분위기가 평화롭지 않은 경우
- 9) 신체구조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

지도방법

- 1) 아이가 대소변 보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하기 전에 부모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유도 한다.
- 2)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한다.
- 3) 아이 혼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힌다.
- 4) 방광과 항문의 신체적인 문제일 경우,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 5) 화장실이 무섭지 않도록 좋은 향기가 나는 디퓨저, 밝은 조명을 두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인형을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존재계의 주민들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궁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덥다. 무지막지하게 덥다. 수박을 잘라서 냉장고에 쥘여두고
시시때때로 꺼내 먹는다. 애고, 그래도 이 뽕어대는 염천에 먹으
라고 수박이란 것이 생겨나서…….

여기까지 중얼거리다 보니 정말 그렇다! 정말 수박 보살이다.
어디 수박만 보살인가. 냉콩국수는 보살이 아닌가. 선풍기는, 냉
장고는, 손이 시릴 정도의 우리 집 지하수는 보살이 아닌가. 그
러면 닭은? 그야말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보살이다. 헉헉대다 정신
차리고 보니 보살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태평세월에는 까맣게 잊고 있던 보살들. 겨울이 되면 또 겨울
보살들이 현신할 것이다. 난로 보살, 솜이불 보살, 털신 보살, 보
일러 보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 해님이 더없이 지극한 보
살로 떠오를 것이다. 이 목숨불이 하나를 위해 우주가 총동원되
어 중중첩첩(重重疊疊) 알뜰한 보살핌을 보내고 있다. 진정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다 보살이구나.

문득 창문이 눈에 들어온다. 창문! 그 창문은 그냥 물건이 아니

다. 그이는 침묵의 보살이다. 무한우주 속을 주유하다가 창문이
라는 소임으로 우리 집에 온 그이. 그이는 더 이상 창문이 아닐
때까지 내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면서 끝끝내 자신의 소임
을 해낼 것이다. 궁극의 회향처는 보시오 작선이다. 핵심 소임,
수명 소임, 보시, 감사, 사과, 관용 등의 비소임을 그지없이 행하
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동사섭의 명상문을 웅얼거려본다. 나는 저 창문이 하고 있는
소임살이의 절반의 절반도 하고 있지 못하다. 창문은 창문이라
는 수명 소임을 핵심 소임으로 하고서 한없는 보시를 베풀고 있
다.

그리고 보니 이 우주의 모든 법신들은 완벽한 작선을 하고 있
다. 옥수수들은 염천에도 곳곳이 서서 탱탱한 옥수수를 생산한
다. 단호박들은 맨 땅에 맨 몸으로 누워 익어간다. 참나리들은
앞사귀가 노랗게 마른 채 나리꽃을 피운다.

어떤 철학자는 내일 지구가 끝난다 해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
무를 심겠노라 하였다지만 자연의 모든 존재들은 이미 각자 최
후까지 자신의 사과를 맺고 있다. 티끌만큼도 내세우는 것 없이
오로지 존재계를 위한 역할을 살아간다. 완벽한 보살이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 아, 구름 보살! 하는데 소나기가
쏟아진다. 아, 아, 아, 진정 소나기 보살!!! 무수보살들의 부축을
받고 있는 이 존재, 어디 감히 불행의 '불'자인들 발설할 수 있
겠는가. 소나기 그치고 울벌레가 운다. 138억 년의 우주가 한 덩
이로 보내오는 소리 공양. 이 이상의 음악이 있으리. 나는, 이 나
는 누구에게 보살이 되고 있는가.



동묘시장 그 신비한 거리中

lovely찌이

동묘 입성기 ②

사당 밖을 나와 동묘의 돌담길을 걸어 본다. 돌담길을 따라 옷을 걸어 놓기도 하고 화면에서 본 것처럼 옷 보따리들이 산을 이루기도 하고 그 산 앞에서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 옷을 헤집으며 내 몸에 맞는 옷과 원하는 스타일을 찾기도 한다.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쪼그리고 앉아 옷을 찾을 자신이 없어 그냥 구경만 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길가에는 옷뿐만 아니라 골동품, 장식품, 각 나라의 지폐와 동전들, 지갑 화장품 장신구 각종 전기제품과 부속품들, 그 중에 가장 안 어울리는 코다리들도 줄지어 서있다. 다른 나라에서 코리안 드림을 찾아 온 이주민들이 그곳에서 본인의 나랏돈을 보고 신기해 하며 구입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의 일행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아들들에게 선물한다며 가족 지갑을 골랐다. 어떤 지갑이 예쁘고 실속 있을지 고민하다 두 개를 들었더니 센스 넘치는 사장님께서 “아유~ 선물한다는데 내



가 또 케이스에 넣어 드려야지~”라며 지갑이 쏙 들어갈 케이스를 주신다. 그렇게 머물다보니 동묘가 주는 묘한 느낌과 구제가 주는 컨트리스타일 속에서 아련한 옛 추억들이 떠오른다. 저 많은 옷들을 대체 어디서 공수해 오는 건지 계속되는 궁금증은 덤. 다음에 오면 나도 쪼그리고 앉아 옷을 고르며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송인공원에서 만나는 봄 ①

한 바퀴 둘러보고는 길을 건너 언덕 위를 올라가니 종로가 한눈에 보이는 송인공원이 나타난다. 몇 개의 계단을 걸어 올라갔는지 한참을 올라간다. 숨이 가빠와 힘들어 질 때쯤 정상에 다다른다. 무릎 아프신 어르신들은 이 길을 어찌 올라가라고 이 높은 곳에 공

원이 있는 건지 주변에서 궁시령 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린다. 그
래도 역시 산이 주는 힐링 포인트는 어딜 가나 꼭 있는 법이니 하
얇게 만개한 벚꽃이 우리를 반긴다.

어떤 나무의 가지 끝에는 아직도 겨울을 떠나보내지 못해 그리
워하며 수줍게 달린 꽃망울들이 있지만, 항상 봄을 먼저 알리는 노
란 개나리와 멀리서 바라보면 핑크빛, 가까이서 보면 하얀 벚꽃이
꽃눈을 뿌려 준다. 꽃비가 내리는 길을 따라 건자니 봄은 어느새
성큼 다가와 내 옆에 서있었다.

지난 호 정답

① ㉠ 광	명	진	언			② ㉡ 일	망	타	㉢ 진
릉				④ ㉣ 파	수	꾼			검
③ 수	타	니	파	타			⑤ ㉤ 동	자	승
목				⑥ 고	슴	도	치		부
원		⑦ ㉦ 고	라	니			미		
		진		⑧ 아	㉧ 소	카		㉨ 국	
⑨ ㉩ 자	신	감			비			⑪ 기	㉪ 호
초		래		⑩ ㉫ 양	자	㉬ 택	일		국
지				도		배			보
⑫ 종	합	소	득	세		원		⑬ 교	훈

지난 호 정답에 참여해주신
권정은 박지한 박혜정 장영희님 고맙습니다.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가로 열쇠

- ① 양력 7월 15일, 총지중의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일(우란분절)
- ② 복날에 먹는 인삼이 들어간 닭 요리
- ③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약재상이 모여 있는 곳, 서울의 동쪽에 있는 00시장
- ④ 밤에 집 근처 가까운 곳에 놀러 가는 일, 밤산책
- ⑤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큰 물결, 0000의 청소년기
- ⑥ 달걀흰자에 설탕을 넣어 단단해질 때까지 거품낸 혼합물
- ⑦ 줄로 만든 돛, 울무의 다른 말
- ⑧ 은색 빛이 나는 얇은 알루미늄 호일
- ⑨ 바다나 호수, 강에서 바람에 의해 이는 물결
- ⑩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이치,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뜻
- ⑪ 백중날 아귀도에 떨어진 모친을 구제한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명
- ⑫ 특정 분야에서 기술이나 실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 ⑬ 말과 같은 체구에 이마에 뿔이 하나 달린 전설 속 동물
- ⑭ 2009년에 발행된 온라인 암호화폐
- ⑮ 외출을 전혀 하지 않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
- ⑯ 홍보석이라 불리는 7월의 탄생석

세로 열쇠

- ㉠ 충남, 전라 방언으로 밤에 얇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 ㉡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통적인 볶음밥 요리
- ㉢ 사무실에서 물 끓이거나 그릇을 세척하도록 마련된 작은 방
- ㉣ 우박이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날아가 산산이 깨지고 흩어진다는 뜻
- ㉤ 1989년 이두호 화백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tv만화. 0000와 108요괴
- ㉥ 앤틱가구에 많이 사용되는 짙은 적갈색을 띠는 원목
- ㉦ 귀, 눈, 입, 코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석가모니부처님을 높여 이르는 말
- ㉨ 중국 역사에서 최고 절세미녀이자 악녀
- ㉩ 어떤 구속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
- ㉪ 옥수수로 만든 과자
- ㉫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논밭에 세워 두는 조형물
- ㉬ 위도와 함께 지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의 하나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중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중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훤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종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보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내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감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마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읍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법 공	보명심	안한수	오승현	오채원
오현준	우 인	이수영	이인성	이혜성	자선화
정화연	총지화	한철수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장윤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승재
분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제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녹음방초화시 綠陰芳草勝花時’

나뭇잎이 푸르게 우거진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녹음과 새의 맑은 울음소리,
깊은 흙내음, 시원한 바람과 어우러진
여름날의 꽃들이 빛을 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고통으로 흔들리는 순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지으라는듯
당신과 함께 있으니 걱정말라는듯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
여름날의 꽃들은 그렇게
자신만의 모습과 몸짓으로
뜨겁고 잔잔하게 위로를 건넵니다.

한 여름의 시작 7월,
주체할 수 없는 더위에 지쳐갈때
꽃 한 송이 곁에 두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도
흰나리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발 행 일 총기 52(2023)년 7월 1일

발 행 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김상미

발 행 불교총지중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07월호



원하건대 모든 중생이 길이 안락하기를
고뇌 겪을 인연 멀리 여의오며
서로 버려 여임 없이 더불어 기뻐하며
원친평등 하여지이다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중에서 -